

## 의사소통식 영어 발음지도

한국교원대학교

김정렬

의사소통식 영어교수법은 Widdowson (1978) 이래, 과거 20여 년간의 여러 외국어 교수 방법들을 (침묵식 교수법, Gattegno; 자연적 교수법, Terrell & Krashen; 전신반응 교수법, Asher; 집단언어 학습법, Curran; 암시적 교수법, Lozanov) 거치면서, 이들 중에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방법을 총괄하여, 명실공히 외국어 교육 방법의 중심으로 그 자리를 갈수록 확고히 잡아가고 있다.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우선 언어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며, 의사소통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로 본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기능의 숙달에 두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보면, 발화내용의 문법적 정확성은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사과를 하는 의사소통기능을 공부하면서, 사과하는 표현으로 Sorry라는 말을 썼다고 하자. 이때, 영어는 주어 생략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Sorry 대신에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인 I'm sorry로 표현해야 한다는 문법적인 문제보다는 사과하는 표현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쓰인 것인지를 묻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의사소통식 교수 방법이다. 현재, 초등학교 16종 영어 교과서도 의사소통 기능들을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의사소통식 교수 방법의 정신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음에서만큼은 아직도 의사소통식 교수방법을 무시하고, 정확한 발음의 명시적인 설명이나, 예시에 그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6차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해설서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발음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많은 양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흐르는 의사소통식 영어교육의 맥을 완전히 끊고, 단지 정확한 발음의 해부학적 예시와 기술에 그치고 있다 (임영재 외 1995). 이러한 발음기관의 단면도를 이용한 해부학적 발음의 예시는 특정 자음의 정확한 혀의 위치를 알려 줄 수는 있지만, 발음훈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사람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동력전달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책자를 읽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자전거를 타고자 하면, 실제로 타고 넘어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발음훈련의 경우 교재의 내용이나 의사소통 기능은 의사소통식으로 가르치면서도 발음만큼은 아직도 원어민의 입모양을 활용한 듣고 따라하기 식의 전통적인 방법의 발음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발음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제시되겠지만, 초등학교에서 듣고 따라하기나 듣고 골라내기와 같은 방법으로 발음훈련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쉽게 지루해 하고, 아마 영어시간 중에서 가

장 싫어하는 시간이 발음연습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현재 의사소통식 교수 방법을 모태로 한 교과서에서도 의사소통식 발음지도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이 시작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아쉬운 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발음 지도의 핵심은 그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어서, 호기심이 많고, 모방성이 강하며, 감수성이 예민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신체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발음을 지도하는 길은 역시 초등학교 교과서의 다른 영역들처럼, 학생들은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교사는 이들 활동을 통해서 교수목표를 성취하는 쪽으로 맞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발음지도가 필요한 이유와 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전통적인 발음지도 방법을 일별해 보고, 의사소통식 발음지도법을 제시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1. 발음 지도의 이유와 요인

발음을 지도하는 목적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서라는 다소 이상적인 동기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갖추기 위해서라는 실질적인 동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이나 동기는 배우는 학생들의 연령이나 학습 동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미국에 이민간 어린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부모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무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씩 영어를 공부하고도 영어로 무엇을 말하면, 우선 그가 하는 발음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 교사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발음지도에 임해야 하는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어민과 의미 있는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그들의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않다. 현재, 과외광풍이라고 불리는 열병에 시달리는 도시의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은 교육부의 EPIK (English Program In Korea)으로 들어 온 원어민 교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고작이다.<sup>1)</sup>

또한, 유아기를 지나서 학생들이 모국어인 한국어의 발음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다른 언어의 발음체계를 배워야 하므로 모국어인 한국어의 교란현상이 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발음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영어로 된 말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영어로 말을 할 때 이해될 수 있는 인지도 (intelligibility)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

1. EPIK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박기화 (1966)을 참고하거나,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 원어민 담당실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어민의 발음을 흉내내어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발음하는 것이 초등영어 발음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발음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 (Wong 1987)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대원칙 속에서, 학습자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발음지도시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보자.

### 1)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임계시기설 (Critical Period Hypothesis; Lenneberg 1967)이 있는 데, 사람에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임계나이(Critical Age)가 있어서, 임계나이 전인 유아기에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원어민과 구별할 수 없는 발음을 익힐 수 있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원어민 수준에 이르는 발음을 습득할 수 없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유아기에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 완벽하게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주위에서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는 설명이 어렵다.

따라서, 임계시기설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하나의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외국어 발음 습득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초등학교에서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임계시기설 때문에 어린 아동들의 영어 발음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발음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초등학교 영어 발음 교육의 목표가 원어민 발음을 성취하자는 것이 아니고, 발음시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도에 초점을 두는 만큼, 그러한 발음의 숙달을 위해서는 임계시기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2) 사회적 요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화자들의 경우에 미국영어 다르고, 영국영어 다르고, 호주영어 다르다는 것을 어휘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발음에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영어 사용자들이 스스로 영국인이고, 미국인이고, 호주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구사하는 영어를 통해서 그들의 개성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한국식 영어나, 중국식 영어, 일본식 영어라는 것을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목표 외국어의 문화권에 빨리 동화되고 싶은 강렬한 동기나 욕구가 있으면, 보다 빨리 그 외국어의 발음을 잘 구사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문화권의 개별성을 고집하고, 목표 외국어 문화권에 대한 동화를 타부시하거나 멀리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모국어의 영향이 강한 외국어 발음이 되기 쉽다. 사회적인 요인과 관련해서는 발음지도시에 외국어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판단은 자제하면서, 문화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객관적인

차이를 지적해 주어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두고, 교사가 가치 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그러한 가치판단 때문에 목표 외국어 문화권을 감정적으로 부러워하거나 질시할 수 있는 데, 이는 건전한 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등한 시각에서 본 문화적 차이 속에서 학생들이 목표 외국어를 구사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들의 외국어가 발음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지도(intelligibility)를 높이는 정도의 발음 교육이 되어야 한다.

### 3) 개인적 요인

학생들 중에는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와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들이 공존하고 있다.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는 모험심이 강하고, 실수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실수하기가 두려워서 감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외국어 습득이 느리고,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외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독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막고, 내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에게는 필요이상의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발음 교육시에 이들에게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데서 외국어 발음을 들려주는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 4) 모국어적 요인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단 모국어의 발음이 완성된 시기이므로, 그들에게 익숙한 음소들과 이들 음소들이 이루는 체계를 벗어나서, 새로이 영어의 음소를 익혀야 하고, 이들 음소들이 이루는 낯선 체계를 익혀야 한다. 외국어 습득시에 그 언어의 발음을 익히려면, 적어도 세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 데, 음소와 그들의 체계, 연습, 그리고 초분절 음소에 속하는 강세, 억양 등이다.

영어와 우리말을 비교해보면, 이들이 음소 항목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연습법칙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강세나 억양의 성질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영어를 구사할 때, 한국어식 영어 발음의 원인이 된다. 발음지도시에 이러한 차이를 잘 알아서 우선 인지도에 치명적인 요소들부터 하나씩 지도해서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시에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음지도를 해야한다.

이러한 모국어의 교란 요인을 극복하고, 영어의 기본적인 발음 교육에 컴퓨터 보조 학습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적이 있다 (김 정렬 1996).

## 2. 전통적인 발음 지도 방법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영어 교육에서 영어 발음 지도는 어떤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식

의 지식의 유무에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이러한 지식을 묻는 유형의 시험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발화를 통해서 어떤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음 훈련은 소홀히 된 점이 많다. 실제로, 음성학 연수회를 통해서 음성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인지도 높은 발음 획득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하면서도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았다.

전통적인 발음지도법은 발음 훈련과 청음 훈련을 비교적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발음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발음 훈련과 잘 듣고 발음들을 상호간에 구분해 내는 문제를 다루는 청음 훈련으로 구분하였다. 이해도 높은 발음 훈련을 위해서 청음이 발음에 앞선다는 주장 (Prator & Robinett 1985) 과 반대로 발음이 청음에 앞선다는 주장 (Ur 1984)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발음과 청음의 선후문제를 떠나서 이들이 서로 상보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래에 나오는 전통적인 발음/청음 지도법은 지식 전달 중심의 발음지도에서 기능의 숙달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발음 훈련법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현실을 돌이켜 보고, 발음지도가 현재의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려면, 아래에 나오는 발음 훈련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2.1 발음지도법

긴장음/이완음의 구분 (Avery & Ehrlich 1992)

/iy/ vs. /I/ beat, bit

/ey/ vs. /E/ bait, bet

/uw/ vs. /U/ boot, book

긴장음은 원음보다 짧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 1) 긴장음 연습

(1) 아래 긴장음은 입술을 넓게 벌리고, 입을 벌리고 웃듯이 발음한다.

bee, bay,

아래 긴장음은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발음한다.

boo, bow

(2) 고무줄을 당기고 있다고 연상한다.

(3) /ey/부터 시작한다. [eeeeeeeyyyyyyy] 다른 모음들도 동일한 요령으로 반복연습

(4) 연음 연습

I see it. [ay siyIt]

I play at it. [ay pleyaet It]

A blow out [shewablowawt]

They blew it. [they bluwIt]

(5) 단음절 낱말을 중심으로 모음을 늘여서 문장 속에서 연습한다.

Teacher: Do you like a 'bee'?

Student: No, I don't pay much attention to it.

Teacher: Did you go to the zoo?

Student: Yes, I saw a ow.

(6) 2음절어 이상을 쓸 때는 이들 모음들이 주강세를 받는 단어를 택할 것

## 2) 이완음 연습

(1) 입을 이완시킨 체, /I/ /E/ 그리고 입술을 둥글게 만들어 /U/를 연습한다.

(2) 손뼉을 치면서 이들 모음들은 짧게 발음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입을 이완시킨 체, 다음 모음들을 연습한다.

sit, lip, bid, window

said, mess, red, fender

book, push, hood, wooden

(4) 이완 전모음 /I/ 와 /E/를 최소대립쌍을 통해 연습한다.

rid, pin, pit, mint

red, pen, pet, meant

(5) 영어에서 이완모음은 어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3) 영어 파열음의 기식화

/p/ plot, /t/ tot, /k/ cot

(1) 종이를 들고 기식현상을 관찰

(2) 기식이 없는 파열음과의 대조 관찰

hot, taught, cot

## 4) 유성 마찰음

/v/ vote, love, /θ/ then, /z/ zoo, rose, /ʒ/ measure

(1) 유성마찰음의 연습은 모음이 전부 유성음이므로 모음사이에 넣어서 연습하면 효과적이고, 이때 학생들이 손가락을 자신의 목 언저리에 갖다 대면, 느낄 수 있다.

[azzzzzaaaaaaaaaaazzzzzzzzzzzz]

## (2) 유무성 최소대립쌍 연습

/f/ fan, safer, leaf/v/ van, saver, leave

/e/ thigh, ether, think, /θ/ thy, either, teethe

/s/ sue, ceasing, face /z/ zoo, seizing, phase

/ʃ/ Aleutian, mesher /ʒ/ allusion, measure

(3) 유성 마찰음 앞의 모음이 무성 마찰음 앞의 모음보다 길다.

leaf	leave
teeth	teethe
peace	peas

(4) 문법의 복수형에서 /s/와 /z/의 발음 차이

5) 음절말 유성 파열음 /b/, /d/, /g/

(1) 최소대립쌍 연습

tap, pat, back (모음이 짧다.)  
 tab, pad, bag (모음이 길다.)

(2) 무성음의 경우, 조음점과 조음자를 떼어서 가볍게 파열한다.  
 유성음의 경우, 조음점과 조음자를 떼지 않는다.

(3) 문장 속에서 연습

Don't rub it. [downt rʌbIt]  
 He's mad at me.  
 A bag of it

6) 어두자음군

brew, blue, crew, glue

(1) 모음을 넣고 발음하다가 모음을 짐차로 줄여나가다가 마침내는 없애기

blue [bʌlu] -> [blu]

(2) 두 단어로 발음하다가 앞단어의 앞부분부터 하나씩 없애서 마침내는 붙여 발음

bad rift -> ad rift -> d rift -> drift

(3) 가장 단순한 발음에서 시작해서 어두자음군의 음소 하나씩을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연습

pit -> spit -> split  
 top -> stop -> strap  
 cat -> scat -> scrap  
 pay -> spay -> spray  
 go -> glow -> grow

7) 어말자음군

/kt/ worked, /ft/ washed, /ʒd/ judged, /ld/ field

(1) 두 단어로 연습하다 줄이기

feel down -> feel dow -> feel d -> field

## (2) 문법 형태소의 첨가를 통한 연습

I watch a lot of TV.

I watched a lot of TV.

## (3) 단순한 자음에서 점차적으로 복잡한 것 도입

bread>brand>brands

class>clasp>clasps

car>card>cards

feel>field>fields

tax>taxed>texts

## (4) 문장 속에서 연습

Hand me the book. -> Han me the book

Post the letter. -> Pos the letter.

## 8) 치마찰음

/θ/ think, /ð/ this

## (1) 혀를 이빨 근처에 갖다 놓고 (닿이지는 말고) 마찰을 통해서 발음

## (2) third, fourth, fifth ...

## (3) 문장 속에서 연습

Those three thugs think that they threw those things there.

## 9) /r/

## (1) 발성연습 /aaaaaaaaaaaarrrraaaaaaaaaa/

## (2) /r/ 소리는 입천장에 닿지 않는다.

## (3) /r/ 과 /D/ 의 최소대립쌍을 통한 비교

putting                      purring

leading                      leering

heating                      hearing

skating                      scaring

## 10) 강세

## (1) 강세가 떨어지는 음절의 발음시에 손으로 기억나게 동작표시

## (2) 동종의 단어들끼리 강세전이가 일어나는 말들 연습

photograph - photography - photographic

## (3) 무의미 단어를 이용하여 강세전이 연습

cortoplate - cortoplaty - cortoplatic



## 11) 장단

- (1) 이미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 3-5명의 소그룹으로 연습  
요일, 달, 숫자 ...
- (2) nursery rhyme의 이용  
Mary had a little lamb  
Jack and Jill went up the hill.

## 2.2 청음 지도법

## 1) 발음이 다른 것 골라내기

보통 네 개의 단어를 들려주고, 이들 중 셋은 동일한 모음이나 자음으로 된 발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발음을 가진다.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발음을 가진 낱말을 골라내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중 모음의 발음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 (1) bit      beat    beam    beet  
(2) bet      pet      bait    jet

다음 중 자음의 발음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 (1) play    pray    pray    pray  
(2) save    save    save    safe

## 2) 발음의 동일성 확인

학생들이 두 개의 주어진 낱말을 듣고, 두 낱말의 발음이 동일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낱말을 잘 듣고, 그들의 모음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밝히시오.

- (1) beet    bit  
(2) green    green

다음 낱말을 잘 듣고, 그들의 자음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밝히시오.

- (1) chair    share  
(2) sheet    sheet

## 3) 듣고 배열하기

학생들에게 먼저 여러 모음이나 자음을 소리별로 들려주고 이들을 해당위치에 표시한다.

1	2	3	4	5
beat	bit	bait	bet	bat

블러줄 낱말들의 예:

mitt, plate, feet, tan, mad, desk, me, lake, egg, ran, head, scene, fit, trip, raise

#### 4) 듣고 강세 음절 고르기

다음절로 된 여러 낱말을 읽어 주고, 학생들이 강세 음절을 고르게 하는 활동이다.

music	musician	sympathetic
photograph	photography	photographic
fortune	forgive	admiration

#### 5) 강세 음절의 동일성 판별

두 낱말을 들려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강세 음절의 위치가 동일한 지를 판별하는 활동이다.

purpose	prevent
possible	vegetable
economy	economic
before	maybe

#### 6) 억양의 판별

문장을 들려주고, 그 문장의 문미 억양이 올림조인지 내림조인지를 묻는 활동이다.

- (1) John is coming. (내림조)
- (2) John is coming? (올림조)
- (3) It's beautiful day, isn't it? (내림조)
- (4) You are not hungry, are you? (올림조)

### 3. 의사소통식 발음지도법

위에서 본 전통적인 발음지도법이 대부분 명시적인 발음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발음기관을 통해서 훈련하거나, 귀를 통해서 듣고 골라내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발성연습이나 무의미 단어를 동원하여 발음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 또한 발음 지식을 명시적으로 들려주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아래에 주어지는 의사소통식 발음지도법이 모든 발음의 지도에 누구

에게나 항상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청음 연습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따로 독립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인 방법을 다소 변형시킨 청음훈련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사소통 행위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구태여 청음훈련을 발음훈련으로부터 독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의 의사소통식 발음지도법은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주의력이 산만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통적인 발음 훈련보다는 아래와 같이 의사소통식으로 발음을 지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 1) 빙고게임

의사소통식으로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방법인 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우선, 학생들이 /b/ 와 /v/의 차이를 공부한다고 가정하자.

(1)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묶는다.

(2) 학생들에게 /b/로 시작하는 음식물과 /v/로 시작하는 음식물의 그림을 여러 개 그려서 학생들에게 임의로 나누어준다.

/b/ bread, beans, bacon, banana, beef

/v/ vanilla, vegetable, vitamins, veal

(3) 그리고는 9개의 빈칸으로 된 빙고판을 그려서, 그룹별로 나눠준다.

(4) 각 팀에서는 “Have you eaten X?” 이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그림 카드를 가진 사람에게 묻는다.

(5) 각 팀에서 질문을 당한 사람이 해당 그림을 가졌으면, “Yes/No, I have (not) eaten X.” 라고 외친다.

(6) 먼저 빙고판에 가진 사람의 이름을 채우는 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Celce-Murcia 1987)

### 2) 이름 맞추기

자음이나 모음 상호간의 구별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인 데, 음소 /b/ 와 /v/의 경우를 또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1) 교사가 먼저 /b/ 와 /v/ 가 들어가는 이름과 동일한 음소들을 사용한 그 사람의 특징을 상술한다.

Becky has big boots.

Vicky has a velvet vest.

Barbara is carrying a big bag.

Virginia is wearing gloves.

bill has a shiny belt-buckle.

- (2)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이름이 적힌 카드를 들고 있고, 다른 그룹은 서술문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들고 있다.
- (3) 교사가 위의 문장을 하나씩 읽어 주면, 양쪽 그룹에서 알맞은 이름과 다른 쪽 그룹에서 알맞은 기술의 그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한다.
- (4) 목표는 양쪽 팀이 교사의 발음을 듣고, 해당하는 이름과 그림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Naiman, Neil 1992 A Communicative approach to pronunciation teaching)

### 3) 역할극

자음이나 모음 상호간의 발음 차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또 하나 유용한 것이 바로 역할극이다. 역할극은 그 자체가 의사소통상황을 내재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에 필요한 해당 목표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습활동들 중에서도 가장 의사소통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역할극을 이용해서 /r/ 와 /l/ 모음의 차이를 배우는 경우를 보자.

- (1) 학생들에게 우선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환자가 주사를 맞는 장면이라고 알려 준다.
- (2) 그리고, 학생들에게 위의 장면에서 쓸 만한 어휘를 예로 보여 준다.

hip, needle, injection, injury, hit, feel

- (3) 학생들에게 교사가 해당하는 어휘가 포함된 대화 내용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이들 어휘를 이용해서 스스로 대화내용을 지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다.

(Hecht & Ryan 1984)

또 다른 한 예는, 영어의 부가의문문과 관련된 억양 연습을 역할극으로 한 번 해보자.

- (1) 상황은 우선 옷가게의 점원이 고객에게 어떤 드레스를 권하는 장면이다.
- (2) 학생들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쓸 만한 부가의문문의 예를 몇 개 보여준다.

This dress is a beautiful color, isn't it?

This dress will fit you perfect, won't it?

This dress is so soft and nice, isn't it?

- (3) 학생들에게 먼저 이러한 부가의문문의 억양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부가의문문이 들어간 지문을 구성하여 역할극을 해보도록 권한다.

### 4) 설문 조사

어떤 특정 음소의 대조 연습이나, wh로 시작하는 질문의 억양 연습, 그리고 연습 연습에 아주 적절한 의사소통 활동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의논하여 설문 조사를 위한 질문을 만든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연습해야 할 내용들이 그 설문조사의 질의문에

포함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wh로 시작하는 의문문과 yes-no 의문문의 문미 역할을 연습한다고 가정해 보자.

- (1)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그룹 대표에게 설문지를 준다.

설문지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Are you looking for an apartment?

Do you like this place?

Where did you live before?

why do you want to move?

- (2) 실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위의 질의문을 충분히 연습시킨다.

- (3) 일정한 시간을 두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다른 학급전체에 보고 하도록 한다.

#### 5) 스무고개를 이용한 연음 연습

영어의 연음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일반동사의 과거형 의문문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연음의 형태이다. 이러한 구개음화 현상을 재미있게 연습하기 위한 하나의 의사소통식 게임을 소개한다.

- (1) 학생들에게 우선 교사가 아래와 같이 물어서 학생들이 지난 주말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파악한다. "What'dij'you do last weekend?"

- (2)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할 만한 주말 활동들을 카드에 적어서,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뽑도록 한다. 그리고, 그 카드의 단어가 그 학생이 한 주말 활동이 된다.

- (3)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Dij'you X?" 라고 물어서, 해당 활동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 6) 전신반응 활동을 통한 발음 연습

전신반응 (Total Physical Response) 활동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발음 훈련을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한국어나 일본어 화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영어 음소 /l/ 과 /r/ 을 구별하는 것을 한 번 해보자.

- (1) 우선 학생들을 반원을 만들어 서도록 도와준다.

- (2) 교사가 아래와 같이 지시하면, 그 말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으로 옮긴다.

Raise your right hand.

Raise your left hand.

Put your right hand out.

Put your left hand out.

## 7) 노래를 통한 발음 지도

영어 노래는 영어의 억양이나 리듬뿐만 아니라 음소들의 차이를 배우고 익히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6)의 TPR의 내용을 조금 변형시켜서, *The Hokey-Pokey* 노래에 맞추어 보면, 아주 재미있게 노래와 함께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다.

(1) 우선 학생들에게 가사를 들려 줘서, 정확한 발음으로 가사를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학생들이 노래의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를 섞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다.

(3) 6)에서 했던 TPR의 몸짓이나 동작을 노래와 함께 하면서 노래한다.

***The Hokey-Pokey***

*You put your right hand in,  
you put your right hand out,  
you put your right hand in  
and you shake it all about,  
you do the hokey pokey,  
and you turn yourself around,  
That's what it's all about*

*You put your left hand in ...*

*right foot in ...  
left foot in ...  
right shoulder in ...  
left shoulder in ...  
right hip in ...  
left hip in ...  
head in ...  
whole self in ...*

## 4. 결론

발음지도법은 외국어를 배울 때, 학습자의 발음이나 청음시에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만약, 학습환경이 ESL 환경이라면, 원어민의 발음이 무한정 입력 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것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영어교육 상황과 같은 외국어 환경에서는 초등학교 영어에서부터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인지도가 낮은 발음을 구사할 때는 즉시 고쳐서 무엇보다도 틀린

발음이 화석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발음지도가 외국어 환경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발음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외국어 학습동기가 확실하므로 그 발음지도 방법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지도 모르지만, 초등학교에서 영어 발음을 가르치는 경우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해서 재미있게 구성해야 만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의력이 산만하고,<sup>2)</sup> 신체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발음지도법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현행, 초등영어 교육은 의사소통 기능을 주어진 소재와 접목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장면을 도입하고, 이러한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영어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등영어 교육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학생들이 언어행위를 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발음이 습득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소통식 발음지도법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발음지도법이 발음 연습과 청음 연습을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하여 지도하였으나, 의사소통식 발음지도법에서는 발음과 청음을 구태여 구분하지 않고, 언어행위 내에서 듣는 행위를 통해서 청음연습이 일어나고,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발음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참고문헌

- 김 정렬 (1996) "Teaching basic English pronunciation using CALL," *어문학* 6권, pp187-207.
- 박 기화 (1996) "원어민 영어 교사 활용을 위한 제언," *외국어 교육* 3권 1호, pp29-41
- 임 영재외 (1995) *초등 영어과 교육 과정 해설*. 교육부
- Avery, P. and S. Ehrlich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elce-Murcia, M. (1987) "Teaching pronunciation as communication," in J. Morley (ed.) (1987) *Current Perspectives on Pronunciation*. Washington DC: TESOL.
- Hecht, E. & J. Ryan (1984) *Survival Pronunciation*. San Francisco, Calif.: Alemany Press.
- Lenneberg, E.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Wiley & Sons.
- Naiman, N. (1992) "A Communicative approach to pronunciation teaching," Avery and Ehrlich (eds)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2.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i+1 분 정도로 잡고 있다. 여기서 i는 나 이이다. 현재 초등학교 3 학년의 경우만으로 대략 8-9 세 정도이므로 그들의 주의집 중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로 볼 수 있다.

-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ator, C. & E. Robinett (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Fourth e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Widdowson, H.G.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ng, R. (1987) *Teaching Pronunciation: Focus on English Rhythm and Inton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gents.
- Ur, P. (1984)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